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와 노후준비금 지출 간의 관계*

Relationship of Income, Education Needs,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Preparations
for Old Age by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장 윤 옥**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Professor Jang, Yoon-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household income, education need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expenditur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for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and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gathered from among 393 mothers living in Daegu with school-aged children from 8 to 19 years old and with wage-earner husbands.

The research tool was a questionnaires which addres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ousehold income, the scale of education needs, the scal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e scale of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scale of expenditur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In order to analyze the study data,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ere used,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using AMOS was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greater the household income, the greater the education needs.

* 본 논문은 2014년도 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 장윤옥(yojang@knu.ac.kr)

Second,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 need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ird, education needs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Fourth, expenditur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was influenced by the education need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e household income of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Finally, education need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for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had a direct effect on the expenditures of preparations for old age. On the other hand, in mediating education needs, household income of these mothers had an indirect effect on expenditures of preparations for old age. The perceive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urned out to have the biggest total effect on the preparations for old age of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교육소비욕구(education needs), 사교육비(expense of private educations), 노후준비금(expenditure of preparation for old age)

I. 서론

고령화 현상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년기가 짧았던 시절이나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이 일반화된 과거에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노년기에 남은 마지막 발달과업이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가족생활주기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출현하는 재무목표들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손원, 2010).

자녀교육열이 세계에서든 높은 우리나라 30~40대인 학령기 부모들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다른 시기보다 더 자녀중심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많아(김시월, 1999) 자녀교육비가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자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이라고 한다(손상희·정영숙, 2003). 학령기 가계는 초·중·고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초등학생이 21만 9000원, 중학생이 27만 6000원, 고등학생이 22만 4000원을 지출(통계청, 2013a)하고 있어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상당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가계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3%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는(현대경제연구원, 2012) 등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소득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변 가계들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사교육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기(강창희, 2012)도 하는 등 학령기 가계의 과도한 사

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가계재무 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령기 가계는 교육소비욕구가 높아 사교육비를 상당히 지출하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김민정, 2007). 학령기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 가계지출 항목 중 노후대비 자금을 가장 먼저 줄이고(양정선, 2009),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박미연, 2008)고 말한다. 더구나 취업의 어려움과 고학력화 현상들로 인해 자녀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50~70대 마저도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마련, 생활비 부족으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최현자, 2007) 미혼자녀와 학업중인 자녀들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부모들은 가계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 둘 다를 충분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노후준비를 희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Todd & Sharon, 1997; 이승신, 2012)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기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는 두 가지 재무목표에 가계소득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지 않을 때는 현재 가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성립, 2005)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은 가계소득(김선희, 1997; 홍성우, 2009)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월평균 가계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5000원을 지출하는 반면, 300~400만원인 가구는 22만 1000원,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만 8000원을 지출한다(통계청, 2013b)고 한다. 그러나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강이주, 2007; 나영미·윤정혜,

2011)와 같은 심리적 변수나 사회경제적 지위(노현경, 2006)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계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다(장운옥, 2013)는 보고들도 있다. 그리고 학령기 부모들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더 지출할 계획(이성립, 2006)이며, 사교육에 대한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확률도 높지만(강이주, 2007),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을 때는 주관적인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김인숙·여정성, 1996)고 한다. 즉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가계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계지출의 한계를 규정하는 가계소득 뿐 아니라 가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 또한 함께 고려하여,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 간의 관계 및 이들 두 변인과 사교육비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학령기 가계들은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한다(박미연, 2008)고 하고, 30대와 40대의 노후준비율이 87.1%와 8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2.5%로 가장 많다(통계청, 2013a). 그러나 공적연금의 도입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공적연금을 만족할 만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10% 정도로 매우 낮다. 더구나 공적 연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 충분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노후를 위한 재정적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노후준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고 한다.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선행연구들(고정옥, 2004; 유경원, 2007; 이선형, 2009)이 사교육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증대는 노후 대비저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이성림, 2005; 현대경제연구원, 2007)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투자와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연구들(박미연, 2008; 이선형,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11)이 있어 왔으나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근원이 되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야기되고,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이는 노후생활의 복지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을 매개로 하여 노후준비금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가계가 많다는 선행연구들(김문을, 2002; 이해근, 2006; 손원, 2010; 함상희, 2010)과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인구학적인 요인에 따른 노후준비방법(박창제, 2008), 노후준비 정도(홍성희·곽인숙, 2006; 박창제, 2008;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노후준비 적절성(양세정·이성림, 2008), 그리고 노후준비 저축 여부(홍성희·곽인숙, 2006) 등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도와 노후준비금의 지출규모나 노후준비금 마련 방법 및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단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에 연구들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노후준비금의 규모나

이것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하는 객관적인 금액인 노후준비금 지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와 노후준비금 지출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 때 가계의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지출부담감으로 구분하고, 노후준비금 지출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액과 노후준비금 지출액은 가계소득의 절대적 수준과 관련이 높고 가계지출의 절대액수는 가계소득의 차이를 반영하기 쉬운 반면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즉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은 소비패턴의 차이를 반영하기(이성림, 2005)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사교육비 및 노후준비금 지출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령기 어머니들이 가계재무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체계적·합리적인 재무설계를 계획·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학령기 자녀를 둔 가계의 가정생활설계 교육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령기 가계의 노후대책 및 복지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기여하고,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찾는 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이들의 관계를 제시하고, 학령기 가계일수록 자원배분이 더욱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교육소비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및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용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는 어떠한가?

2. 교육소비욕구

인간이 갖는 다양한 소비욕구 중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소비욕구인 교육소비욕구는 ‘입신출세에 필요한 최고의 학력이나 일류의 학벌 등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려는 사적인 욕망’,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열망과 실제 자녀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김영화·이인효·박현정, 1993)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받을 사람의 욕구라기보다는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 즉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로 정의될 수 있다(황행문, 2000; 장혜주, 2002). 또 교육소비욕구는 도구적 교육열과 본질적 교육열이나 성공지향과 인격지향 교육욕구(김영화·이인효·박현정, 1993; 김경원, 2010)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소비욕구를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교육을 위해 소비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교육이 출세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졸업한 명문대학을 그들의 자녀도 다니기를 바라며(서혜경, 2004), 모든 계층의 절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한 교육소비욕구를 표출한다(황행문, 2000). 이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지만 가계의 한정된 여건이나 교육환경의 차이로 교육욕구의 강도와 실제로 이것이 표출되는 양상은 계층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김영화·이인효·박현정, 1993)고 한다. 반면 학부모의 학력과 경제적 능력 정도에 따라 사교육의 출발점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높은 학교교육열과 교육열로 인한 행동 선택의 양상 자체는 학부모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이기석, 2013)는 보고도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계소득

가계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이며, 가계소득은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의 총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가계소득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부부의 월 급여, 이자소득, 부업소득, 보너스,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월평균 금액을 가계소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허석균, 2005; 고희채·박수완, 2009; 정운영·정세은, 2010)이 보고하고 있다. 이 중 가계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최대 0.5% 증가된다(고희채·박수완, 2009). 김기욱·이승신(1990)은 학력, 연령, 직업, 가계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중 가계소득만이 모든 가계소비지출 비목의 지출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3. 사교육비

사교육비는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기관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와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오만숙·김진희, 2011). 사교육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실제 가계에서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액과 이러한 지출로 인해 가계가 경험하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거주지, 자녀의 학년, 자녀수,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김인숙·여정성, 1996; 박미희·여정성, 2000)고 말한다. 서혜경(2004)도 사교육비 지출에는 가계의 총소득, 어머니의 학력, 거주지, 어머니 직업의 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가계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현진, 2004; 이은우, 2004; 남기곤, 2006), 가계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상승한다(성낙일·홍성우, 2009)고 말한다.

학령기 가계는 사교육비와 관련된 소비욕구가 강하며,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시월, 1999). 학령기 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는 지출비목이 사교육비이며,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기도 하여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가계의 주된 저축 목적이라고 한다(한국소비자원, 1997a). 이처럼 학령기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라고 한다.

가계 특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고, 자녀의 학교급이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증가하며, 사교육비 지출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배분의 조정과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한다(이성림, 2006). 고정옥(2004)은 학령기 가계들은 사교육비가 상승하거나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할 계획이며, 계층에 상관없이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말한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강창희(2012)는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크지 않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교육의 효과를 직각하지 못하면서도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계속 지출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불균형을 가져와 지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4.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준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이며(이선형·최은희, 2010) 마지막 경제적 과업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박현식·이선형·최은희, 2010).

우리나라 30-60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윤석명·손창균·이힘찬·김은주·최미선·유근춘·신화연·방하남·이용하, 2012)에서 월평균 최소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184만 6800원, 본인 기준으로는 11만 6400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적정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279만 4700원, 본인 기준으로는 179만 5900원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월평균 21만 3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

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52.8%,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나 전체 응답 가구주 중 72.9%가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노후준비 부담금액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133만원, 월평균노후준비 부담금액은 6만원인데 이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약 196만원인, 2분위의 약 14만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평균 약 615만원인 최상위 5분위의 약 43만원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령기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근 조사일수록 노후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임경은, 1999; 삼성경제연구소, 2007; 박미연, 2008; 이승신, 2012)을 알 수 있다. 임경은(1999)은 중년층의 반 이상이 노후대비에 대한 계획을 구상 중이거나 계획만 세운 상태라고 하고, 박미연(2008)은 자녀 학령기 가계의 80%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가계는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알아본 이승신(2012)은 가계의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69만원, 적정노후생활비는 평균 101만원이라고 보고한다.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을 알아본 손원(2010)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마련하는 가계가 많았으며, 부동산 투자, 건물임대, 그리고 기타 다른 준비방법을 사용하는 가계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와 관련해 김경화(2005)는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와 은퇴소득의 적정성에 차이가 없다고 하고, 박창제(2008)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은퇴나 퇴직하고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율이 높아진다(홍성희·곽인숙, 2006;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는 보고가 있으나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없다(김경화, 2005)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 또 중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황승일, 2000;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이선형·최은희, 2010)과 교육수준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김경화, 2005; 홍성희·곽인숙, 2006)도 있다. 아버지의 은퇴 후 소득과 노후준비는 아버지의 은퇴 전 고용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백은영, 2008) 직업이 있을 때 노후준비를 더 잘 하지만(박창제, 2008), 직업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홍성희·곽인숙, 2006)도 있어 직업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5. 가계소득 및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

가계소득 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구한 이승신(2003)은 고소득층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 가계의 약 5배 이상에 이른다고 하며,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오지수(2007)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최상위 층보다 중산층 가계가 더 높다고 하며, 백학영·안서연(2012)도 사회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경우 중산층인 가계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사교육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다른 소비를 축소시켜 소비의 불안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나영미·윤정혜(2011)는 우리나라 어머니는 본질적인 교육소

비육구가 도구적인 교육소비육구보다 더 높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소비육구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강이주(2007)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말한다.

김송이(2008)는 월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과시적 성향이 강할수록 자녀교육열이 높다고 하고, 조미경(2006) 역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학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는데, 부모의 높은 교육소비육구는 결국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국 가계소득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도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현경(2006)은 부모의 교육소비육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1997a)은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교육기에 경제적 복지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특히 첫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계의 경우 가장 취약하다고 하면서, 학령기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육구가 높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지출과 그러한 지출로 인한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조민정(2007)은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강이주(2007)는 사교육비 효과를 많이 느낄수록, 가능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가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복주(2010)는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크지만 사교육을 중단하게 될 경우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김성자(2004), 김상호(2004)도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인숙·여정성(1996)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지출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교육비 지출은 하고 있지만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6. 가계소득 및 교육소비육구와 노후준비

가계소득과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성숙·박운아, 1992; 박보라·신종일, 2012)에서 가계소득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월소득이 높은 중년층들이 낮은 중년층보다 노후준비정도와 노후대비 저축율이 높다(황승일, 2000; 유인순·최수일, 2012)고 한다. 홍성희·곽인숙(2007)은 자산과 소득이 많은 남성보급자일수록 노후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조성숙·서훈(2011) 역시 월소득과 월지출금액이 많을수록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육소비육구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높아지며 이에 따라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저축이 위축되어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감소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07)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가구 중 76.8%가 사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약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다면 그 금액을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 야기되는 주된 원인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육구로 인해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급증하기 때문(현대경제연구원, 2007)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는 교육소비육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실제 가계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8.3%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였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현대경제연구원, 2012)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박미연(2008)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반면 조정진(2011)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7. 사교육비와 노후준비

이승신(2012)은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 역시 낮은 소득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후생활비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고, 고정옥(2004)은 가계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한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한다고 말한다. 또 농가의 중년기를 대상으로 농가의 노후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을 조사한 김인숙(1992)은 첫 자녀가 초등교육기 일 때 중·고등 교육기일 때보다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자녀교육비 부담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Todd와 Sharon(199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5%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박미연(2008)은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이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많고, 사교육비

지출부담 정도가 크며, 사교육비 증액 의향 역시 높으며,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얻은 등 다른 지불원천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남편이 근로소득자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1명 이상 둔 어머니들 3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 교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도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기(김경근, 2003)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가 가계의 경제적 부양에 있어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고,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로 어머니보다 클 뿐 아니라, 은퇴 후 소득과 노후준비는 은퇴 전 고용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백은영, 200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인 가계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및 은퇴와 관련된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3년 7월 8일~12일까지 학령기 어머니 8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는 2013년 8월 2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교육관련 특성 (N=393)

특성	내용	인원(%)	특성	내용	인원(%)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6(1.5)	아버지 연령	30세 미만	0(0.0)
	30세~39세	218(55.5)		30세~39세	141(35.9)
	40세~49세	154(39.2)		40세~49세	222(56.5)
	50세 이상	15(3.8)		50세 이상	30(7.6)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6(1.5)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4(1.0)
	고졸	59(15.0)		고졸	24(6.1)
	전문대졸	170(43.3)		전문대	142(36.1)
	대졸	150(38.2)		대졸	201(51.1)
	대학원 이상	8(2.0)		대학원 이상	22(5.6)
거주형태	자가	217(55.2)	자녀수	1명	112(28.3)
	전세	156(39.7)		2명	260(66.4)
	월세	11(2.8)		3명	21(3.3)
	기타	9(2.3)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3)	생활 수준	하	8(2.0)
	만족하지 못한다	30(7.6)		중하	81(20.6)
	보통이다	153(38.9)		중	255(64.9)
	만족한다	175(44.5)		중상	46(11.7)
	매우 만족한다	18(4.6)		상	3(0.8)
	무응답	16(4.1)			
사교육비 마련	저축을 줄여서 충당	128(32.6)	사교육비 추가지출 의향	전혀 없다	5(1.3)
	저축한 돈에서 충당	56(14.2)		없다	34(8.7)
	생활비를 줄여 충당	179(45.5)		보통이다	214(54.4)
	취업·부업	18(4.6)		있다	93(23.7)
	기타	12(3.1)		매우 있다	47(12.0)
계		393(100)	계		393(100)

일~30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남편이 근로소득자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1명 이상 둔 학령기 어머니 45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마트, 시장 등에서 학령기 어머니들에게 배부·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421부의 질문지 중 아버지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질문지와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39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자녀수와 구성 등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 예상은 퇴연령, 연금여부 등과 같은 직업 및 은퇴관련 특성들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부부의 월 급여, 이자, 부업소득, 보너스,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월평균금액을 말

〈표 2〉 연구대상자의 직업 및 은퇴관련 일반적 특성

(N=393)

특성	내용	인원(%)	특성	내용	인원(%)
어머니 직업	임시직	47(12.0)	아버지 직업	임시직	4(1.0)
	생산직	36(9.2)		생산직	140(35.6)
	사무직	65(16.5)		사무직	205(52.2)
	서비스직	25(6.4)		서비스직	2(0.5)
	행정관리직	2(0.5)		행정관리직	23(5.9)
	전문직	10(2.5)		전문직	19(4.8)
	자영업	9(2.3)		자영업	0(0.0)
	무직/전업주부	198(50.4)		무직/전업주부	0(0.0)
	기타	1(2.5)		기타	0(0.0)
노후준비 시작시기	30대부터	72(18.3)	경제적 노후준비도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23(5.8)
	40대부터	148(37.7)		충분하지 못하다	130(33.1)
	50대부터	91(23.2)		보통이다	218(55.5)
	60대부터	12(3.1)		충분하다	20(5.1)
	퇴직과 동시에	70(17.8)		매우 충분하다	2(.5)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주택·대출상환	130(33.1)	소득	200만원미만	1(0.3)
	사회보장을 기대	21(5.3)		200-300만원미만	50(12.7)
	자녀양육·교육비	175(44.5)		300-400만원미만	182(46.3)
	자녀에게 의지	9(2.3)		400-500만원미만	135(34.3)
	필요하지 않음	18(4.6)		500-600만원미만	19(4.9)
	관심없음	25(6.4)		600만원이상	6(1.5)
	기타	15(3.8)			
어머니예상 은퇴연령	50세 미만	39(9.9)	아버지예상 은퇴연령	50세 미만	19(4.8)
	51-55세 미만	62(15.8)		51-55세 미만	42(10.7)
	55-60세 미만	61(15.5)		55-60세 미만	179(45.5)
	60세 이상	78(19.8)		60세 이상	142(36.1)
	은퇴없음	152(38.7)		은퇴없음	9(2.3)
	무응답	1(0.3)		무응답	2(0.5)
어머니 연금여부	퇴직금	74(18.8)	아버지 연금여부	퇴직금	230(58.5)
	퇴직연금	52(13.2)		퇴직연금	82(20.9)
	퇴직금·퇴직연금	5(1.3)		퇴직금·퇴직연금	25(6.4)
	특수직역연금	11(2.8)		특수직역연금	20(5.1)
	연금없음	250(63.6)		연금없음	33(8.4)
	무응답	1(0.3)		무응답	3(0.8)
계		393(100)	계		393(100)

하며, ‘150만원 미만’부터 50만원 간격으로 ‘700만원 이상’까지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객관식 문항과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주관식 문항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계소득은 이 두 질문에 대한 응

답을 비교한 결과 두 응답이 일치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월평균 가계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하였다.

3) 교육소비욕구 척도

교육소비욕구 척도는 김영화·이인호·박현정(1993), 김경원(2010), 현주(200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작성한 다음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9이다.

4) 사교육비 척도

(1) 사교육비 지출비율

사교육비 지출액은 자녀 1인이 아닌 자녀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어(논술, 속독 등),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각의 과외비·학원비와 그 외 학업(종합, 과학, 사회 등) 관련 과외비·학원비, 학업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학업교육비와 음악 및 미술 과외비·학원비, 체육(축구, 태권도 등) 활동비, 문화체험비, 예·체능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예·체능교육비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학업교육비와 예·체능교육비를 모두 합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눠 백분율한 것을 의미한다.

(2)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척도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척도는 김시월(1999), 고정욱(2004), 함상희(2010), 박미연(2008)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2이다.

5) 노후준비금 지출비율

노후준비금 지출액은 노후준비만을 위하여 가계가 지출하는 월평균 노후준비금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연금과 기업과 관련된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노후준비만을 위해서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하는 연금보험·저축,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펀드 등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은 이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월평균 노후준비금 지출액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눠 백분율한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9.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교육소비욕구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본 연구대상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382만 23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대구광역시의 월평균 가구소득 330만원(통계청, 2013a) 보다 높다. 또 교육소비욕구의 평균은 3.85점으로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교육소비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교육소비욕구에 미치는 영향 (N=393)

독립변수	종속변수	교육소비욕구	
		B	β
가계소득		.002	.393***
F		71.435***	
R ²		.176	
수정된 R ²		.152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beta=393$)은 교육소비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15.2%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조미경, 2006) 가정의 소득이 자녀학력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서혜경, 2004)는 연구결과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나 열의나 지원 행위 등의 교육소비욕구가 더 높으며(현주, 2003; 나영미·윤정혜, 2011) 자녀의 교육에 더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들(김영희, 2002; 김평화, 2011)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가

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보다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나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집중하는 여유 등이 높고 이것이 교육소비욕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및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비율,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3만 2000원이며, 이는 2012년 대구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8000원(통계청, 2013b) 보다 높다. 또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13.82%로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계소득의 6~8% 정도를 차지한다(통계청, 2013a)는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다 할 수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평균이 2.35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및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에는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밝힌 정영숙(1996)의 연구결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

〈표 4〉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및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N=393)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교육비 지출비율	
	B	β
가계소득	.006	.082
교육소비욕구	-.196	-.013
F	1.182	
R ²	.006	
수정된 R ²	.001	

다고 한 강이주(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한 노현경(2006)의 연구결과,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가계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장운옥(2013)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에 따른 절대적인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액의 백분율인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소득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가계소득 수준이나 교육소비욕구의 수준에 관계없이 개별 가계마다 소득과 관련하여 일정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N=393)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B	β
가계소득	.000	-.033
교육소비욕구	-.283	-.169***
사교육비 지출비율	.040	.361***
F	24.690***	
R ²	.160	
수정된 R ²	.153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는 사교육비 지출비율($\beta = .361$)과 교육소비욕구($\beta = -.169$)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수들의 설명력은 15.3%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성림(2005), 장운옥(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의 평균은 13.8%로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계소득의 6~8% 정도를 차지한다(통계청, 2013b)는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대상자들

의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평균이 2.35점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계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사교육비 지출을 필수적인 소비지출 비목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계소득 수준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부모로써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것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한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사교육을 가능한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강이주(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 때도 교육과 관련된 주변의 분위기나 사회적 압력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많이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조건 뿐 아니라,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나 주변의 사교육 환경 등 거주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분위기가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김송이, 2008),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아도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높으며(박미연, 2008) 사교육비 지출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을 때는 주관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김인숙·여정성, 1996)는 선행연구결과들과로써 다소 지지될 수 있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소득 내에서 어느 한 비목

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경우 다른 비목의 소비지출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일수록 줄여야 하는 다른 부분의 가계소비지출이 다른 학령기 어머니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더 많이 지각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다는 함상희(2010), 사교육비 지출로 가정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김동욱(1997),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클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정도가 크다는 이승신(2003)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액,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노후준비금 지출액은 월평균 60만 900원이며, 가계소득 대비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은 15.76%로 나타났다. 이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가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비은퇴가구의 가구형태, 금융자산, 노후준비 상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91만원보다는 적다.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는 사교육비 지출비율($\beta = .270$), 사교육비 지출부담감($\beta = .172$), 교육소비욕구($\beta = .158$)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수들의 설명력은 15.8%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노후준비금 지

〈표 6〉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N=393)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가계소득	.002	.025
교육소비욕구	-2.629	-.158**
사교육비 지출비율	.295	.270***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1.708	.172***
F	19.398***	
R ²	.167	
수정된 R ²	.158	

p<.01 *p<.001

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노후대비의 가장 큰 제약요인(삼성경제연구소, 2007; 박현식·이선형·최은희, 2010)이며, 월평균 소득과 월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더 많이 한다(조성숙·서훈, 2011)고 하는 연구결과들과는 다소 상이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계는 남편이 시간제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소득자인 가계들인데, 이런 상용직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7%(통계청, 2013a)이고,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2.5%로 가장 많은(통계청, 2013a) 것으로 보아 소득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사회보험의 형태로 노후준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가계소득이 높다고 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의 미한다.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급증하여 노후에 경제적 불안이 야기된다고 한 연구결과(현대경제연구소, 2007)로 다소 지지될 수 있다.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본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기 보다는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지출부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조경진(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는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대비 저축액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유민상(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노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크게 느껴 오히려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기(조경진, 2011)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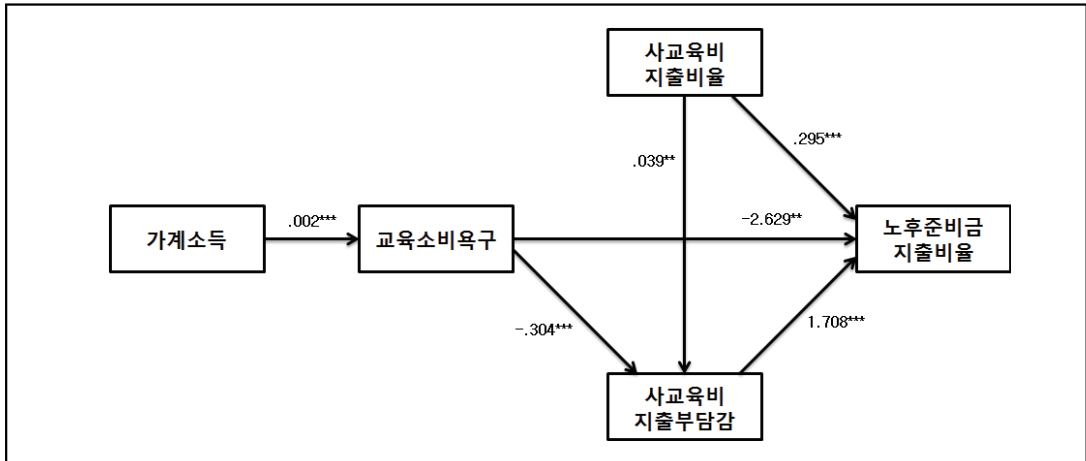
4.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이상과 같은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구성·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우선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통해 설정한 구조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조경로모형의 부합도 지수

NPAR	CMIN	DF	CFI	TLI	RMSEA(0.29)	
					Lo90	Hi90
13	2.639	2	.997	.984	.000	.109



<그림 1>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경로분석모형

<표 8>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효과 (N=393)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노후준비금 지출비율	가계소득	-	-.006**	-.006
	교육소비욕구	-2.629***	-.519**	-3.148
	사교육비 지출비율	.295***	.067**	.362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1.708***	-	1.708

p<.01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RMSEA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수치들의 통계치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사교육비의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직·간접효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가계소득의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소비욕구를 통한 간접효과가 -.006으로 나타났고, 교육소비욕구의 직접효과는 -2.629,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519로 나타났다. 또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사교육비 지출비율의 직접효과는 .295,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067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의 직

접효과는 1.708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없었다. 제 변수들 교육소비욕구가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총효과가 -3.41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교육소비욕구를 매개로 하여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매개로 하여 학령기 어머니의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커지고, 이것이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크다는 연구결과(조미경, 2006; 김송이, 2008)와는 유사하지만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조성숙·서훈, 2011)와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은 학력 및 직업계층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가 커서(현주, 2003; 나영미·윤정혜, 2011)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게 되고, 이는 이들이 자녀교육을 가장 우선시 하여 가계재무목표를 설계하게 하기 때문에 학령기 부모의 노후준비금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가 노후준비금을 지출하는데에는 가계소득의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이를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과도한 교육소비욕구 표출로 교육의 양극화, 세대간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은 가계의 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욕구를 적절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 수준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욕구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학령기 가계에서는 소득의 상당한 일정 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가계소득이 높은 가계는 예상치 못한 가계지출이 발생한 경우 사교육비를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계는 예상치 못한 가계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이 커져서 삶의 질 저하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령기 어머니들이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적절한 것인지를 가계의 다른 재무목표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교육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경쟁을 자제한다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계경제 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사교육비 지출이 보편화되어 실제 지출은 하고 있지만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일수록 자신의 지출에 대해 회의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기 어머니들이 자신의 교육소비욕구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계속해서 지출하는 것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령기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분명히 하여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것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큰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령기 어머니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령기 어머니 스스로가 가계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능력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지출부담감은 클수록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어머니들의 교육소비욕구는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교육비 지출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이 부모의 교육소비욕구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원하는 원하지 않든 누구나 하는 보편적 행위임을 말해준다. 또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은 교육으로 인한 자녀성공 기

대 욕구가 낮고 자녀와 자신을 별개로 지각하는 경향이 많아 오히려 자신의 노후준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 사교육비 지출비율,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가계소득은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교육소비욕구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만을 미쳤다. 이중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에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높고,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금 지출비율이 낮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교육소비욕구가 크면 노후준비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령기 어머니들은 우선적으로 가계소득 수준 뿐 아니라 자신이 자녀에게 갖고 있는 교육소비욕구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학령기 어머니들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필수적 지출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부분의 가계지출이 금전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보다 심사숙고하여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이 둘 간의 합리적인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학령기 가계가 노후준비와 자녀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적정 지출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내에서 지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때 학령기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분명히 하여 타인이나 주변 상황에 이끌려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령기 어머니들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은 효율적인 은퇴설계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공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계는 가계의 재정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수행하여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가계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령기 어머니들이 가계재무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체계적·합리적인 재무설계를 계획·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학령기 자녀를 둔 가계의 가정생활설계 교육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령기 가계의 노후 대책 및 복지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로써 학령기 가계일수록 자원배분이 더욱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합리적인 지출방안을 모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 학회지, 16(2), 315-331.
- 2) 강창희(2012).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의 성적 향상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4(2), 141-171.
- 3) 고정옥(2004).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고희채·박수원(2009). IMF 구제금융기간 전후 자산 변동과 가계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안전연구, 10(1), 35-58.
- 5) 김경근(2003).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교육학연구, 41(4), 87-105.
- 6) 김경원(2010). 개인가치와 교육열이 교육관광 상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경화(2005).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기옥·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9) 김동욱(1997). 마산·창원지역의 사교육비 실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문을(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민정(2007). 소비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김상호(2004). 김해지역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김선희(1997). 사교육 유발요인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한국소비자원.
- 14)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3(2), 45-57.
- 15) 김성자(2004).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생의 사교육 실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김송이(2008). 한국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2), 13-23.
- 17)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0(3), 101-121.
- 18)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19) 김영희(2002).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1-14.
- 20) 김인숙(1992).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중년기 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____·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22) 김평화(2011).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24) 나영미·윤정혜(2011).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19-1212.
- 25) 남기근(2006). 한국 사회에 아직도 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경제학연구, 54(2), 119-141.
- 26)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27) 박미연(2008).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29) 박보라·신종일(2012). 병원 근로자의 노후생활 준비도 연구.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4(1), 79-89.
- 30) 박현식·이선형·최은희(2010).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거주 지역 고령화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85-315.
- 31)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32)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4(2), 27-51.
- 33)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학회지, 19(3), 9-47.
- 34) 삼성경제연구소(2007).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 :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제 96호. 삼성경제연구소.
- 35) 서혜경(2004).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머니의 자녀교육 관심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성낙일·홍성우(2009).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3), 183-212.
- 37) 손상희·정영숙(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49-60.
- 38) 손 원(2010).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분석 : 부부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양세정·이성림(2008). 노후 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 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16.
- 40) 양정선(200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 생활의 질. 가족여성연구원.
- 41) 오만숙·김진희(2011).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계 분석. 응용통계연구, 24(1), 193-206.
- 42) 오지수(2007).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유경원(2007).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 국제금융연구, 312, 1-38.
- 44) 유민상(2008). 사교육비 지출이 노후대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유인순·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천안지역 공단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245-262.
- 46) 윤석명·손창균·이힘찬·김은주·최미선·유근춘·신화연·방하남·이용하(201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7) 이기석(2013). 학부모의 학교교육열 행동 특성 분석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8) 이선형(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20-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43-64.
- 49) _____·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50)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51) _____(2006).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한국소비자학회, 17(2), 115-132.
- 52)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7, 72-80.
- 53)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 54) _____(2012). 노후생활비 준비에 따른 연금수급액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37-152.
- 55)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205-224.
- 56)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지, 22(2), 1-31.
- 57) 이해근(200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비노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8) 임경은(1999). 도시 저소득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연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9) 장윤옥(201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211-231.
- 60) 장혜주(2002). 가정학습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아동의 학습습관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1)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2)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1.

- 63) 정운영·정세은(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21-48.
- 64) 조경진(2011).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공교육비지출 유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5) 조미경(2006).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6) 조민정(2007).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7) 조성숙·서훈(2011). 중년남성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4, 211-235.
- 68)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43, 135-156.
- 69) 최현자(2007).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 예·적금, 개인연금과 보험. 한국금융학회.
- 70) 통계청(2013a).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71) _____(2013b). 2013년 사교육비 조사보고서. 통계청.
- 72) 한국교육개발원(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73) 한국소비자원(1997a).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원.
- 74) _____(1997b).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이용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 75) 함상희(2010). 병원근무자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대화에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 : 동대문구 종합병원 근무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6) 허석균(2005).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유동성 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7(1), 1-38.
- 77) 현대경제연구원(2007). 사교육·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 규모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 78) _____(2012).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 40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 79) 현 주(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80) 홍성우(2009).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1)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82) _____(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 83)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4) 황행문(2000). 사회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 제주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5) Todd, K. J. & Sharon, A. D.(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25-32.

- 투 고 일 : 2014년 3월 19일
- 심 사 일 : 2014년 4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8월 1일